

회/원/사/탐/방

Lightec korea

- 대표이사 : 심상인
- 설립연도 : 2000년 1월
- 본사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0-48
- 주생산품 : LED경관조명, LED 도로 안개등/유도등, LED가로등
점멸기, LED조명제어, LED 교통신호등, 터널등 제어기
- 전화번호 : 062)955-4371~2
- 팩스 : 062)955-4370

라이텍코리아(주)

<http://www.Lightekore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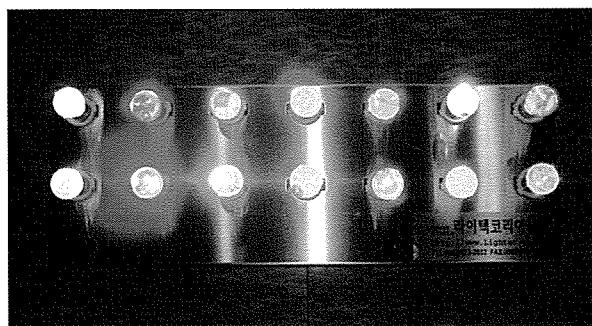
LED 조명전문회사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

LED조명모듈 및 경관조명을 주력

라이텍코리아(대표 심상인 www.Lightekorea.co.kr)는 창의적 기술을 바탕으로 1997년에 설립되어 가로등제어기, LED교통신호등, 도로안전시스템, LED조명모듈 및 경관조명을 주력으로 하는 젊은 기업이다.

라이텍코리아는 연구개발에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으로 시장을 선도해왔으며,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을 통한 독창적 디자인 개발과 시각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연구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에 의존해온 제품을 우리 기술로 개발하여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세계시장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인재양성 및 국내·외 마케팅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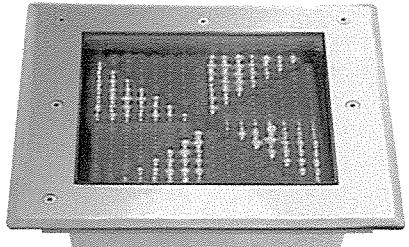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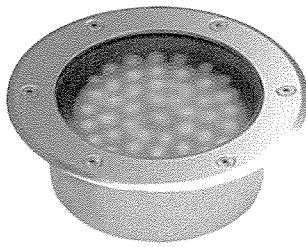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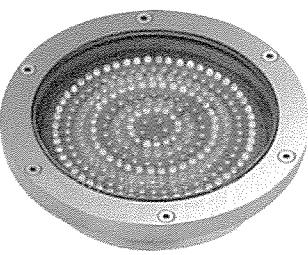
이 회사가 주력하는 제품들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



는 LED를 이용한 제품들로 그동안 수입품에 의존했던 장비인 LED 교통 신호등 배광 측정 장비(Gonio meter)는 LED 교통 신호등의 3차원 X,Y,Axis 배광 특징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전용장비로써 LED 교통신호등의 국내 표준 측정규격에 부합되는 제원(광도 분포 및 휘도 분포 측정, 색도 등)을 갖추고 있고 LED 조명 및 일반조명의 국제 규격인 CIE 측정규격에 맞는 국산화 한 장비로써 에너지기술연구소와 협력하여 국내 첫 LED 교통신호등 배광 측정 장비이다.

국내 첫 LED 교통신호등 배광 측정 장비 개발

또한 건축용 재료 및 장식용으로 건축물 내, 외벽면이나 바닥면, 물속 등 장소와 환경에 관계없이 쓰임새가 다양하며 갈라지거나 흡이 없고 직사일광의 피해나 동해 및 방수성이 뛰어나 고급 건축 자재로써, 콘트롤러와 PC를 이용하여 칼라연출 및 연출시간을 자유 자재로이 운용이 가능한 LED lighting tile 제품과 필라멘트 전구의 단점을 보완하여 LED광원을 사용한 전구로써 루미나리에 쇼 및 크리스마스 트리 등 장식용 색 전구로써 활용도가 높고 다양한 칼라의 색 전구 제품인 LED Light Bulb의 개



발에 성공해 판매에 들어갔다.

특히 도시의 공공 장소 및 광장, 쇼핑센터, 상점가, 휴게실 등 경관조명 및 인테리어 조명기기로써 콘트롤러와 PC를 이용하여 칼라연출 및 연출 시간을 자유 자재로이 운용이 가능한 제품인 LED Plaza Lamps, 방수 및 절연이 우수하여 수중 및 분수조명에 적합한 LED Pool Lamps, VHF Multi 접속방식의 무선 원격 점·소등 제어 및 자동 민원 접수처리 관제, GIS 기능과 데이터 베이스 관리를 통합 관리 System인 양방향 가로등 무선 제어 System 등도 LED를 응용한 제품들로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 안전성과 뛰어난 품질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품들을 상품화 해 나가고 있다.



LED조명이 각광받는 시점

심상인 사장은 “흔히들 21세기를 ‘빛의 시대’라 말한다. 과거 실리콘 반도체가 전자 정보의 혁명을 가능케 했다면 이제 제 3세대 반도체인 질화물 반도체가 21세기 빛의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발광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LED), 즉 ‘빛을 내는 반도체’가 바로 그것이다. LED는 반도체의 빠른 처리속도와 낮은 전력소모 등 장점을 가지고 있고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에너지 절약효과가 높아서 차세대 국가 전략 제품으로 꼽히고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질화물 반도체 계열의 청색 및 녹색 LED와 InGaAlP를 이용한 적색 및 호박색 LED의 발광 효율이 급속히 증가되면서 기존의 디스플레이 위주의 사용 범위를 뛰어 넘어 조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조명용 LED가 기존의 형광등 및 배열등으로 대표되는 조명기구에 비해 약 10~15% 정도의 낮은 전력소모와 100,000시간 이상의 반영구적인 수명, 그리고, 환경 친화적 특성 등 에너지 소비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일반 조명기구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로서 주목 받고 있다.

심 사장은 “갈수록 미(美)를 추구하는 추세로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LED조명이 각광받는 시점으로 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꾸준히 해온 라이텍코리아는 많은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속의 조명전문회사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여 꾸준한 성장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재 / 편집실 윤희진〉